

## 평생교육사 역량 연구동향 분석 : 2002년~2021년 20년간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

배혜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실습지도교수)\*

### 요약

교육 활동을 통해 익히는 역량도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고 새롭고 다양한 지식, 가치와 태도 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년간 국내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와 DBpia에서 검색한 90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사 역량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논문에 게재된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연구물 90편(학위논문 54편과 학술지 36편)의 논문을 연구연도별, 연구계제지별, 연구방법별의 연구동향을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연구연도별은 20년을 제4기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90편 중 제1기 2002년~2007년은 5편(5.56%), 제2기 2008년~2012년에는 24편(26.67%)이고, 제3기 2013~2017년은 36편(40%), 제4기 2018년~2021년은 25편(27.77%)이며, 연도별 중에서 특히 2016년은 10편(11.11%)으로 가장 높았다. 둘째, 학위논문은 총 56편에서 석사학위 45편(80.36%)으로 매우 많았고 평생교육전공 논문은 35편(62.5%)이다. 학술지 논문은 총 34편에서 계제지별로는 평생교육 주류 계제지가 13편(38.24%)이고, 비주류 계제지는 21편(61.76%)이다. 셋째, 연구방법별 분석 결과는 양적 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시사점과 차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평생교육사 역량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주제어: 역량, 평생교육,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역량, 연구동향

### I. 서론

교육의, 교육에 의한, 교육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미래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기술 발전과 트렌드 변화를 관찰하면서 미래 사회의 큰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 등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배우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학습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

\*주저자: 배혜리(03087, 서울시 중로구 대학로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bhr9984@hanmail.net)

에 다양한 학습이 공유되고 개개인이 가진 환경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육이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 본연의 모습인 동시에 삶의 질, 국가경쟁력, 사회통합 등을 선도하는 핵심과제이다. 이를 위한 평생교육의 실현·운영·평가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현장 전문가가 바로 평생교육사이다(이기용, 2021).

평생교육사란 “정규 학교를 제외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학습자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의미한다(이해주, 윤여각, 이규선, 2016). 그리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을 기획·설계·실행과 운영, 평가·교수 업무를 평생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고 있다(배을규, 이민영, 강선희, 2020; 김혜영, 2014; 권양이, 2011). 그러나 평생교육사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사용한 것은 아니다. 평생교육사는 국가자격증으로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사회교육 전문요원 제도에서 유래된 것이다.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사회교육 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변경 시행되었다(양홍권, 2011; 이기용, 2021;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하지만 평생교육사는 연구자나 관계자의 기관 목적과 이해에 따라 평생교육자, 평생교육전문가, 평생교육실천가, 평생교육담당자, 평생교육종사자,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인적자원개발사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현영섭, 2017; 김미예, 2021).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은<sup>1)</sup>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평생교육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국가 평생교육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한다.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8,404명으로 가장 많은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었고,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양성된 평생교육사의 수는 총 150,542명이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이처럼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사는 법제도적으로는 평생교육분야의 전문직을 의미하고는 있지만, 평생교육사는 직업적 정체성에서 전문직으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전문직이라고 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명료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는 그렇지 않고 있다(정민승, 2010).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특성과 평생교육 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자가발전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현재형인 능력이 아니라 잠재력이나 특성과 같은 총체적 가능성인 평생교육사의 역량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가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분야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는 역량을 길러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면

1) 평생교육법 제19조 및 제24조

서 양적 팽창을 보이고 있는 사회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이동주 외, 2015). 왜냐하면, 평생교육사의 역량이 학습자를 변화하고,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때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또한 질 높은 삶의 주체로 사회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며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처한 환경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적절히 제어해 나갈 수 있는 다방면의 소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역량이 꼭 필요하다(서보순, 안성우, 2014). 따라서 최근의 평생교육사 역량 연구 경향을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2002년에서 2021년까지 20년간의 국내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평생교육사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분석은 있으나 평생교육사 역량에 대한 연구동향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평생교육사 역량의 중요성은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역량기반사회의 미래변화에도 관련이 있다(현영섭, 2017).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평생교육사 역량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수행된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연구동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전의 평생교육사 역량 연구 파악이 필요하여 그 연구수행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2021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평생교육사 역량에 대한 연구동향(연도별, 게재지별, 연구방법별)은 어떠한가?

둘째, 평생교육사 역량의 체계적인 확산과 발전을 위한 연구동향 분석 결과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II. 평생교육사의 법적인 지위와 역량

### 1. 평생교육사의 법적인 지위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학습정보 제공, 상담 및 교수, 그 외 평생교육진흥 사업계획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sup>2)</sup>”로 평생교육분야의 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다(배을규, 이민영, 강선희, 2020; 이기용, 2021; 박지혜, 최희준, 2008).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사는 교육부 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평생교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육을 진흥하기 위한 현장전문가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 업무를 수행<sup>3)</sup>하는 평생교육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거나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평생교육사는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사회교육전문요원이 양성된 이후 2021년까지 총 150,542명의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었다.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자료에 의하면, 평생교육사 양성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8,404명으로 가장 많은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었고, 최근 4년간 양성 현황을 보면 2018년 6,788명, 2019년 6,671명, 2020년 6,741명, 2021년 6,734명이 양성되었다.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양성된 평생교육사의 수는 총 150,542명으로, 평생교육사 자격 등급별 양성 현황을 보면 1급이 938명(0.6%), 2급이 141,895명(94.3%), 3급이 7,709명(5.1%)으로 양성된 평생교육사 대부분이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323개 있으며, 전체의 237개(73.4%) 기관이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고, 86개(26.6%)기관이 학점은행기관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이다. 시도별 양성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95개(29.4%), 경기 56개(17.5%), 인천 8개(2.5%) 등 수도권에 전체의 159개(49.2%) 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울산 광역시의 경우에는 양성기관이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의 양성기관과 세종특별자치에는 2개의 양성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분포에 있어서도 지역 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일반 평생교육 시설이 2020년 2,381명, 4년 동안 8,956명(33.5%)으로 가장 많은 평생교육사를 양성하였고, 그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2020년 1,357명으로 4년 동안 5,569명(20.9%)을 양성하였고, 대학이 2020년 954명으로 4년 동안 4,210명(15.8%)을 양성하였다. 양성과정은 크게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0년에는 대학, 대학원 등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4,323명(64.1%)의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어 정규교육과정이 비정규교육과정보다는 더 많은 평생교육사가 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평생교육법」<sup>4)</sup>에 의해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기관 배치 현황은 전체 4,493개 중에서 3,560(79.2%)개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모든 기관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었고,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경우 398개(82.7%) 기관에 배치되어 있다. 평생교육시설 중에는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평생

3) 평생교육법 제24조 2항

4) 평생교육법 제16조

교육사 배치율이 379(9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336(80.8%)로 높았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854(75.3%),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시설은 328(74.7%)로 다른 평생교육시설에 비해 배치율이 낮았다. 이에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평생교육기관은 그다지 많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사의 배치에 있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배치기준 및 배치율은 <표 1>과 같다.

<표 1>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의 배치율 및 배치기준(편(%))

구분		배치 (배치율)	배치기준
평생 교육 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100)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평생학습관	398(82.7)	·정규직원 20명 이상인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 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인 경우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교	초, 중등	8(80)
	부설	대학(원)	336(80.8)
	사업장부설	379(96.4)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언론기관	854(75.3)	
	지식,인력개발	431(76.8)	
	시민사회단체	328(74.7)	
	원격형태	809(77.6)	
합계	4,493개	3,560(79.2)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1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으로도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차(2002년~2007) 평생학습진흥계획 주요내용 중에는 평생학습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제2차(2008년~2012년)는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제3차(2013~2017)는 평생교육사 자격 통합관리체제 구축 및 평생교육사 경력관리제도 도입으로 구인-구직의 원활한 연결 및 정보 교류의 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제4차(2018년~2021) 평생교육진흥계획 주요내용 중에는 지역 평생교육 전문인재로서 평생교육사 전문성 제고 지원으로 평생교육사 양성 체제 개선과 현장에서의 역할 구분을 감안하여 자격

등급별로 수준체계를 재설정하고 이수과정, 교육내용의 차별화,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 개선과 재교육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내실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역량과 자질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사의 역량이 평생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학습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지위는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은 상당히 모호한 것으로 본다(정민승, 2010). 따라서 법적인 지위를 확실히 부여받기 위한 평생교육사의 역량은 불가피하다.

## 2. 평생교육사의 역량

### 가. 평생교육사의 직무와 역량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분석, 평가, 교수업무를 수행 한다”고 「평생교육법」<sup>5)</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첫째,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로써 평생교육 과정의 요구를 분석하고 설계해서 개발한다. 둘째, 운영자로서의 역할이며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운영한다. 셋째, 평가자의 역할로써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넷째, 교수자의 역할로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한다. 다섯째, 상담자의 역할이며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한다(이병준, 1999). 그리고 평생교육사의 직무는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및 업무를 의미하며, 평생교육사의 직무 범위는<sup>6)</sup>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운영·평가·컨설팅,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및 교수, 그 외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의 관련 업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직무수행 영역을 살펴보면, 기획 및 계획은 평생학습사업이 추구하고자하는 비전과 추진하려는 전략을 성립하고, 기획서 및 실행계획서를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학습당은 평생학습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생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프로그램 개발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조직하고 매체로 개발하며, 운영 및 지원은 평생학습사업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전문적으로 실행하고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을 하고 관리한다(김진화, 2008; 최영근, 2015; 박지혜, 최희준, 2008, 박명신, 2020). 그리고 교수학습은 학습자의 특성과

5)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항

6)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활동을 개발·적용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강좌를 전개한다, 변화추진은 학습자(개인, 지도자, 동아리, 단체 등)의 역량개발 발굴·육성, 변화추진을 수행, 상담 및 컨설팅은 학습자의 생애설계를 자문 및 상담을 하고, 기관과 지역의 평생학습도시사업을 조직적으로 설계하며, 평가 및 보고는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성과와 결과를 과학적 진단과 보고를 하며, 평생학습사업의 성과를 유지 및 확산한다(조외현, 서희정, 안영식, 2013; 김진화, 2008). 행정 및 경영은 평생학습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와 기관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며, 조사 및 분석은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프로그램의 기획을 위해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한상길, 2009; 박지혜, 최희준, 2008). 이처럼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직무는 이보다 더 다양하다. 이것은 평생교육기관의 종류나 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하는 업무가 각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급격한 시대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역할의 이해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어떤 역할과 직무가 강조되는가 하는 것은 평생교육기관이나 상황 그리고 본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평생교육사가 맡은 업무에 따라 우선순위와 중요도는 다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직무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박근수, 김주후, 2012). 이처럼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직무는 평생교육 실천영역과 학습자 및 교육내용의 확장과 변화 속에서 차별화와 전문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사회변화를 촉진하고,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조되고 있다(이해주, 윤여각, 이규선, 2016; 정민승, 2010). 이와 같이 평생교육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역할 및 직무의 중요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자질 함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평생교육사의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 나. 평생교육사 관련 선행연구 및 한계

평생교육사는 국가 및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이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각각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평생교육사가 전문직으로서 어떤 특징과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양질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의 자질과 역량이 필요하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주어진 업무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

평생교육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동향분석 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동향 분석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것으로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적자원개발을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평생교육의 다양한 영역과 주제들에 관한 평생교육 동향분석 연구가 본격적으로는 2010년 이후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양하게 평생교육 분야의 동향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평생교육의 운영 주체인 평생교육사 동향분석 연구는 매우 미비한 편이었으며, 더군다나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동향 분석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현영섭(2017)의 ‘평생교육 담당자 연구동향: 1998년~2016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와 배을규, 이민영, 강선희(2020)의 ‘국내 평생교육사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동향 분석’ 그리고 이기용(2021)의 ‘한국 평생교육사 관련 연구동향 분석’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3편의 학술지 논문을 살펴보면, 먼저 현영섭(2017)의 연구는 1998년-2016년 게재된 평생교육 담당자의 연구동향 학술지 논문으로 총 93편을 분석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분석기준을 연구제제지, 연구제제연도, 연구주제, 영역구분, 저자 수, 연구대상자, 연구방법이었으며 연구주제는 직무, 역량, 철학과 인식, 전문성, 요구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기용, 2021). 역량과 직무를 연구주제로 한 연구는 93편중에서 24편(12.9%)로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기용(2021)의 연구에 의하면, 2011년-2020년 한국 평생교육사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에서 평생교육사와 유사한 평생교육 담당자, 평생교육종사자 등을 검색하였는데 그 중에서 많이 수행된 연구주제는 16.67%를 차지한 ‘직무 및 역량’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평생교육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및 역량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배을규, 이민영, 강선희(202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평생교육사 관련된 연구로 연구시기를 크게 3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기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로 보았고, 2기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구분하였으며, 그 이후의 시기인 2014년부터 2019년을 3기로 하였다. 연구 대상에서 추출된 주제어가 약 20여 년 동안에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전체 연구의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는 역량 출현빈도가 총 58개 중에 16회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어 평생교육사 관련 연구들이 수행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사의 연구동향에서 연구 주제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평생교육사의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문적 역량에 관한 연구(김경희, 2009; 조희주, 조상욱, 2016; 김영준, 김문섭, 2020), 평생학습상담 역량(조외현, 서희정, 안영식, 2013), 퍼실리테이터 및 퍼실리테이션의 역량(김재연, 2015; 백수정, 2013; 류상현, 2017), 평생교육사의 역량 개발(이해주, 2012; 박새봄, 김진화, 2009; 동미정, 2008), 수행 및 실천적 역량(김영준, 김문섭, 2020; 동미정, 배을

규, 2009; 김소현, 2008), ICT활용 역량(조현지, 2007), 직무 및 핵심역량(김종완, 2016; 정혜원, 2013) 등의 논문이 있다. 특히 평생교육사의 전문적 역량을 개념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연구한 논문은 평생교육의 각 영역별 상황에 맞게 형성되는 행동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제적인 활동과 경험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 역량은 실천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사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본인의 노력에 의해 다양한 의미가 창출될 수 있는 성격의 직무로 이해하고 접근한다는 것과 평생교육사가 근무하는 현장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의미와 가치를 타인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식과 아이디어 차원의 역량이 중요하며 그 지식과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김경희, 2009). 평생교육사가 근무하는 현장은 복잡적이고 다변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불안정한 상태가 강하다. 이러한 현장에서 일하는 평생교육사의 업무 역시 명확하게 구별되고 분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므로 실천적인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실천적 역량 연구는 평생교육의 실천적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실천과 경험을 강조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실천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사고와 행위로 표출하는 실천적 역량 연구 내용을 6가지로 요약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확고한 평생교육 가치관은 평생교육개념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이다. 둘째, 상황적 전문지식과 기술은 조직의 특성과 업무의 내용에 따라 처한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형성 기술은 다양한 학습자와 다양한 학습 요구에서 원활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자아통합적 정체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이고 통합성을 지니는 것이다. 다섯째, 자기주도적인 자세는 평생교육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스스로 노력하고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와 절차의 이해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조직의 절차와 관행을 잘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역량은 소속된 조직과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동미정, 배을규, 2009).

본 연구는 평생교육사 동향분석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수행된 연구 주제가 평생교육사 역량에 관한 연구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와 학위논문에게 게재된 평생교육사 역량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연도별, 연구게재지별, 연구방법별을 차별화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류법에 의해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동향과 관련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특이점으로는 평생교육사 역량과 관련된 최근 20년간(2002년-2021년)을 분석한다는 점, 학위논문 54편과 학술지 36편의 총 90편의 게재지를 분석한다는 점과 다양한 연구방법, 즉,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혼합 연구 등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생교육사 관련 동향분석 결과에서 연구주제 중, 평생교육 담당자의 직무와 역량이 수행되었다는 점,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많이 활용되었다는 점 등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 평생교육사 관련 연구동향’, ‘평생교육 담당자 연구동향’, ‘국내 평생교육사 관련 연구동향 분석’ 등을 고찰해 볼 때, 평생교육사 역량 동향 분석 연구는 국내의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도 다양한 시사점이 제공되었다.

### Ⅲ. 연구방법

#### 1. 자료 수집 및 분석 범위

본 연구는 문헌을 검토하여 최근 2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논문 선정 범위를 정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한국학술인용색인, DBpia 등 포괄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자료 범위를 2002년부터 2021년 말까지의 등재 및 등재후보지의 국내 학술 및 학위논문으로 한정하였고, 자료 수집은 제목과 주제어에 평생교육사 역량 키워드를 통하여 1차 검색에서 학술지 49편과 학위논문 125편으로 총 174편이 검색되었는데, 2차 검색에서 제목을 비교하여 중복되는 논문 또는 다문화 교육사, 재활동이교육사 등의 용어가 포함되는 연구는 연구동향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논문으로 선발에서 제외하여, 최종 국내 학술지 34편과 학위논문 56편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국내 논문 90편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어 활용되었으며, 평생교육사 용어와 유사한 평생교육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종사자, 평생교육 실천가, 평생교육 담당자,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하는 평생교육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 2.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분석대상 논문은 평생교육사 역량 제목과 주요어(Key word) 그리고 초록에서 관련 내용이 있는 논문으로 총 90편을 추출하였다. 최종 결정된 논문은 최근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연도별, 연구계제별, 연구방법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의 연도별 범위는 2002년부터 2021년의 20년간이며, 이와 같이 분석한 연도별 기준은 자료 수집에 활용된 학술연구정보시스템과 DBpia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자료가 등록된 연도이다(성운정, 이민영, 백지수, 2017).

연도별 분류법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년 연구시기를 4기로 분류하였다. 제1기는 2002년부터 2007년, 제2기는 2008년부터 2012년, 제3기는 2013년부터 2018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가 제4기이다. 연구계제별 분류는 학위논문 출처와 평생교육전공과 비 평생교육전공으로 분류하였고, 학술지는 저자 수와 평생교육 관련 주류계제지인 평생교육학연구, 평생학습사회, Andragogy Today, 평생교육·HRD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와 기타는 비 주류계제지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별 분류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혼합 연구 등 유목화 하여 제시하였다. 검토된 문헌 선정과 수집된 문헌 내용 분석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집하여 분류한 연구물을 분석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물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검토 분석한 후 연구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 논문을 검색하였고, 코딩을 거쳐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사 역량에 대한 주요한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도별 연구동향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발행된 국내 평생교육사 역량과 관련된 연구물 총 90편의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도별로 논문 게재 수 분석을 연구시기를 크게 제4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기는 평생교육사 양성과 배치 그리고 직무에 관한 기준의 강화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시기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연구논문은 5편(5.56%)이다. 제2기는 2008년부터 2012년으로 평생교육사 자격 교부의 일원화에 관한 일부 법 개정이 이루어진 시기로 제1기보다 약 5배 증가한 24편(26.67%)이다. 그리고 제3기는 2013년부터 2017년까

지이며 시·군·구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를 위한 연수 및 매뉴얼 제공과 행복학습센터 지원을 위한 시·군·구 단위 거점기관을 운영하여 지역 행복학습센터 허브 역할 수행한 시기이며 가장 높은 비율인 36편(40%)이다. 마지막 제4기는 2018년부터 2021년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시 노인평생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정 이수, 평가에의 적용 방안 마련 및 평생교육사 양성 및 연수 체계 개편을 통한 전문성 함양 지원으로 구분되는 시기로 25편(27.77%)이 해당된다. 그리고 학술지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꾸준히 평생교육사의 역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구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연구연도별 분석 결과(편(%))

	제1기 2002~2007		제2기 2008~2012		제3기 2013~2017		제4기 2018~2021		합계	
	학 술 지	학 위	학 술 지	학 위	학 술 지	학 위	학 술 지	학 위	학 술 지	학 위
논문 수	1	4	8	16	11	25	14	11	34	56
합계	5(5.56%)		24(26.67%)		36(40%)		25(27.77%)		90(100%)	

## 2. 연구계재별 연구동향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발행된 국내 평생교육사 역량과 관련된 연구물 총 90편에서 학위 논문 56편과 학술지논문 34편의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학위 및 학술지 연구계재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 가. 학위논문 분석

국내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연구를 출판 형태별(학위논문, 학술지논문)로 분석하여 평생교육전공과 비 평생교육전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학위논문 출처와 전공별을 분석한 결과, 학위논문 중 석사학위 논문이 총 56편중에서 45편(80.36%)으로 가장 많았고, 박사학위 논문은 11편(19.65%)로 4배 이상으로 많은 차이가 났지만, 매 기마다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위논문은 제3기 25편(44.64%), 제2기 16편(28.57%), 제4기 11편(19.65%), 제1기 4편(7.1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위논문은 제3기인 2013년부터 2017년에 연구가 활성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전공은 논문 소속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학과 및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한 논문을 의미하며, 그 외는 모두 비 평생교육전공으로 분류하였다. 논문 총 56편중에서 평생교육전공은 35편(62.5%)이며, 비 평생교육전공은 21편(37.5%)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전공 연구는 제3기 16편(28.57%) 제2기 12편(21.42%), 제4기 6편(10.71%), 제1기 1편(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 평생교육전공은 제3기는 9편(16.07%)로 가장 많았다. 학위논문 출처별 및 전공별 분류는 <표 3>과 같다.

<표 3> 학위논문 출처별 및 전공별 분석 결과(편(%))

	제1기 2002~ 2007		제2기 2008~ 2012		제3기 2013~ 2017		제4기 2018~ 2021		합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학위논문 출처	4	0	15	1	21	4	5	6	45	11
평생교육전공	1(1.79)		12(21.42)		16(28.57)		6(10.71)		35(62.5)	
비 평생교육전공	3(5.35)		4(7.15)		9(16.07)		5(8.94)		21(37.5)	
합계	4(7.14)		16(28.57)		25(44.64)		11(19.65)		56(100)	

#### 나. 학술지논문 분석

한국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학술지 논문 연구의 저자 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제1기 1편(2.94%), 제2기 8편(23.53%), 제3기 10편(29.42%), 제4기 15편(44.12%)로 매 기마다 증가하였다. 저자 수 1인이 21편(61.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자 수 2인이 12편(35.29%)이고, 저자 수 3인이 1편(2.94%)로 매우 적었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사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1인, 2인 연구가 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지만, 향후 연구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자 여러 명이 상호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한국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게재지별 학술지 연구동향은 평생교육 관련 주류게제지로 평생교육학연구, 평생학습사회, Andragogy Today, 평생교육·HRD연구, 성인계속교육 연구와 그 외의 연구는 비주류 게재지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국내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학

술지 게재지별 연구동향 분석 결과는 평생교육 관련 주류 게재지인 평생교육학연구 6편 (17.66%), 평생학습사회 4편(11.76%), Andragogy Today 1편(2.94%), 평생교육·HRD연구 1 편(2.94%), 성인계속교육연구 1편(2.94%)과 비주류게재지에서는 21편(61.76%)이었다. 2002년 부터 2021년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주류 게재지가 아닌 비주류게재지에 실린 논문의 비율이 주류게재지 논문 비율보다 높았다. 비주류 게재지에는 인문사회21, 한국산학기술학회, 예술인 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기타 등이 있다.

분석 결과로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연구 게재지는 점차 주류 게 재지에서 평생교육사 역량과 관련성이 낮은 게재지로 변화되었다. 이에 향후 평생교육사 역 량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평생교육사 역량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학술 행사 및 관련 주류 게재지 학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자의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저자 수 및 게재지별 연구동향 분석은 <표 4>와 같다.

<표 4> 저자 수 및 게재지별 연구동향 분석(편(%))

		제1기 2002년 ~ 2007년	제2기 2008년 ~ 2012년	제3기 2013년 ~ 2017년	제4기 2018년 ~ 2021년	합계	
저 자 수	1인	1(2.94)	4(11.76)	6(17.66)	10(29.42)	21(61.77)	
	2인	0	4(11.76)	4(11.76)	4(11.76)	12(35.29)	
	3인	0	0	0	1(2.94)	1(2.94)	
	합계	1(2.94)	8(23.52)	10(29.42)	15(44.12)	34(100)	
게 재 지	주 류	평생교육학연구	1(2.94)	3(8.82)	1(2.94)	1(2.94)	6(17.66)
		평생학습 사회	0	3(8.82)	1(2.94)	0	4(11.76)
		Andragogy Today	0	0	1(2.94)	0	1(2.94)
		성인계속 교육연구	0	0	0	1(2.94)	1(2.94)
		평생교육· HRD연구	0	0	0	1(2.94)	1(2.94)
	비주류	0	2(5.88)	7(20.60)	12(35.30)	21(61.76)	
합계		1(2.94)	8(23.52)	10(29.42)	15(44.12)	34(100)	

### 3.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배을규, 이민영, 강선희(2020)의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구분하였고, 현영섭(2017)과 이기용(2021)의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문헌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 Q방법 등으로 연구방법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의 국내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와 학위논문이 게재된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혼합 연구의 네 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평생교육사 역량에 관한 논문의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분석 결과는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가 43편(47.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질적 연구 23편(25.57%), 문헌 연구와 혼합 연구는 각각 12편(13.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사 역량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연도는 2013년부터 2017년인 제3기에 가장 높은 35편(40%)이며, 그 다음은 2008년~2012년과 2018년~2021년은 25편(26.67%)이고, 2002년부터 2007년인 1기가 가장 낮은 5편(5.55%)이다. 특이한 점은 문헌 연구는 제4기인 2018년~2021년에 6편(6.67%)로 가장 높았고, 혼합 연구는 제2기인 2008~2012년에 7편(7.78%)로 높았다. 이와 같이 국내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연구방법에서는 양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은 질적 연구와 문헌 연구, 혼합 연구 순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사의 실천적인 전문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하여 질적 연구의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적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유감이다(김경희, 2009). 이에 따라 차후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사 역량 관련 주제가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의 실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지식과 능력 등 실제적인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2년에서 2021년까지 연구방법별 분류에서 평생교육사 역량과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방법별 분류(편(%))

연도별	제1기 2002~ 2007	제2기 2008~ 2012	제3기 2013~ 2017	제4기 2018~ 2021	합계
양적 연구	3(3.33)	8(8.89)	22(24.44)	10(11.11)	43(47.77)
질적 연구	1(1.11)	7(7.78)	8(8.90)	7(7.78)	23(25.57)
문헌 연구	1(1.11)	2(2.22)	3(3.33)	6(6.67)	12(13.33)
혼합 연구	0	7(7.78)	3(3.33)	2(2.22)	12(13.33)
합계	5(5.55)	25(26.67)	35(40)	25(27.78)	90(100)

## V. 결론 및 제언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특성과 평생교육 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즉,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령에서 규정하는 교과를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이기 때문에 자격 취득 이후 지속적인 전문성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평생교육사는 다른 유사 국가전문자격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등과 달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럽게도 전문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연수를 통해 평생교육 현장의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9)의 연도별 평생교육 통계자료집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를 위한 연수 및 매뉴얼 제공과 평생학습센터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시기라고 했지만 평생교육 실습기관에서 예비 평생교육사의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실습지도자의 연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또한 실습생을 지도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는 평생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평생교육사 역량에 관해 2002년부터 2021년 20년간의 국내 논문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평생교육사 역량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2013년~2017년은 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를 위한 연수 및 매뉴얼 제공과 평생학습센터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을 운영하는 시기라서인지 가장 높은 40%를 차지하였다.

둘째, 연구계제별 연구동향에서는 학위논문 중에서는 석사학위논문이 80.35%이며, 평생교육전공 학위논문이 62.5%를 차지하였다. 학술지 논문 연구는 매 기마다 점점 증가 추세이며, 1인 저자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평생교육관련 주류계제지인 평생교육학연구, 평생학습사회, Andragogy Today, 평생교육·HRD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류계제지 보다는 비 주류계제지에 실린 논문 비율이 높았고 또한 비주류계제지인 경우는 매 기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여전히 양적 연구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평생교육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평생교육사는 법령에 제시된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역량을 위한 연수 및 매뉴얼 제공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 전문 인력으로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교육과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비평생교육사 실습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의 역량교육과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계제지 동향 분석에서는 평생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평생교육 관련 비주류계제지에 실린 논문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 기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평생교육사 역량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참여의 활성화와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평생교육 주류 계제지에의 활발한 연구와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셋째, 평생교육사 역량에 관한 연구는 평생교육 전공자에 의해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현재에도 양적 연구가 질적 연구보다 약 2배의 차이가 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차원의 실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지식과 능력 등과 같은 실제적인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향후 평생교육사 역량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의 학회 활동 및 정책 포럼 등 적극적인 연구 참여와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 및 산업기술은 불평등과 사회분열의 심화와 자원 고갈의 가속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며 개인이 함양해야 할 기본적 역량과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때 필요한 변혁적 역량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고 평생교육사가 함양하기 위한 역량교육이 어떠해야하는지에 관련하여 탐색하고, 앞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과 대상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전문직으로서 평생교육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조직과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녀야 할 중요한 실천적 능력으로는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직무능력 습득, 업무 환경 적응 필요. 특히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만들어가는 세계, 주체적인 인간, 힘을 키워가는 평생학습체제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의 변혁적 역량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언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한계이며,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1). **2021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2-2006). **연도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8-2012). **연도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2017). **연도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2021). **연도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권양이(2011).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이수 대학생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7(1), 91-118.
- 김경희(2009). 평생교육사의 전문적 역량 성격과 특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4), 357-386.
- 김미예(2021). 평생교육종사자에 관한 연구동향: 2001~2021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산업융합연구**, 19(3), 67-74.
- 김소현(2008). 평생교육사의 프로그램 운영 직무와 수행역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김영준, 김문섭(2020). 장애인 평생교육전문인력의 교과교육과정 내용 수업지도 한정성 검토: 자격수요기반 타당화 및 현행 평생교육사 전문 수행역량 대비 변별화. **인문사회21**, 11(6), 1425-1440.
- 김종완(2016). 평생교육실무자의 전문역량인식 및 직무교육과 직무만족도간의 관계: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대학원.
- 김진화(2008). 평생교육사 직무모델 개발과 타당화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4(1), 1-31.
- 김재연(2015). 평생교육사의 퍼실리테이터의 역량 분석.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김혜영 (2014). 원격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학습자들의 직업이미지 인식 분석. **열린교육연구**, 22(2), 331-358.
- 동미정(2008). 실천기반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본 평생교육사의 역량개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동미정, 배을규(2009). 평생교육사 경험에 기반한 실천적 역량 연구. **교육문화연구**, 15(2), 159-182.
- 류상현(2017). 평생교육사의 퍼실리테이션 역량에 대한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박근수, 김주후(2012). 평생교육사 역할의 중요도와 교육요구도 분석. **평생학습사회**, 8(3), 35-57.

- 박명신(2020). 평생교육실습 내용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평생교육·HRD연구**, 16(1), 161-185.
- 박새봄, 김진화(2009). 평생교육사 네트워킹 행위의 유형화 및 수행역량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5(3), 213-242.
- 박지혜, 최희준(2008).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생의 평생교육 실습경험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4(4), 215-243.
- 배을규, 이민영, 강선희(2020). 국내 평생교육사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통합분석. **HRD연구**, 22(3), 1-31.
- 백수정(2013). 평생교육자의 퍼실리테이션 역량 진단 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서보순, 안성우(2014).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은유(metaphor) 분석.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53(3), 87-109.
- 성운정, 이민영, 백지수(2017). 노인여가의 국내연구동향 분석: 최근 5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9(2), 33-40.
- 양홍권(2011).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있어서 실무자 실천공동체(Cop)의 성장과 학습 역동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7(4), 1-29.
- 이기용(2021). 한국평생교육사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1105-1128.
- 이동주, 정민승, 박선경, 송성숙(2015). **평생교육실무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
- 이병준(1999). **평생교육사 직무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해주(2012). 교육봉사를 통한 평생교육사의 역량개발 탐색. **평생학습사회**, 8(2), 215-236.
- 이해주, 윤여각, 이규선(2016). **평생교육실습**.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정민승(2010). 평생교육사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의 조건. **평생학습사회**, 6(2), 151-167.
- 정혜원(2013). 평생교육담당자의 직무역량 인식정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조외현, 서희정, 안영식(2013). 평생교육사의 평생학습상담 역량에 관한 요구분석. **평생학습사회**, 9(3), 93-113.
- 조현지(2007). 평생교육사의 ICT학습경험, 종사기관, 업무와 ICT활용 역량, 전문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희주, 조상욱(2016).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인문학 콘텐츠 활용: 텍스트로써의 문학, 공간, 인간읽기. **문화예술교육연구**, 11(3), 21-36.
- 최영근(2014). 평생교육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직무모델 적용과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의

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상길(2009). 평생교육론. 공동체.

현영섭(2017). 평생교육 담당자 연구동향: 1998년~2016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성인교육학회, 20(1), 65-93. 교육개발원.

평생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 에서 2022. 11. 06 인출.

평생교육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시행령> 에서 2022. 11. 06 인출.

· 논문 접수 2022. 11. 08 / 수정본 접수 11. 30 / 게재 승인 12. 23

· 배혜리: 부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평생교육전공) 올해 수료함.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실습지도교수와 더채움 평생학교(비영리법인) 교장 겸임. 주요 관심 분야는 전환학습 및 확장학습이론, 노인 학습공동체와 평생교육사의 역량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임.

*Abstract*

## Analysis of Competency Research Trends in the History of Lifelong Education

: Focus on Domestic Papers for 20 Years from 2002 to 2021

Bae, Hye Ri(Professor of Lifelong Education Practical Guidance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Competencies acquired through educational activities also require coping with uncertain situations in the future and cultivating new and diverse knowledge, values and attitudes. This study analyzes research trends on the competency of the history of lifelong education with 90 papers retrieved from DBpia and the domestic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for 20 years. Research trends of 90 research papers (54 theses and 36 academic journals) related to the history of lifelong education published in domestic papers were analyzed by research year, research publication, and research method by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irst, 20 years were classified as the 4th period by research year, and out of a total of 90 papers, five papers (5.56%) in the 1st period from 2002 to 2007 and 24 papers from 2008 to 2012 in the 2nd period (26.67%), 36(40%) in the 3rd period from 2013 to 2017, 25 (27.77%) in the 4th period from 2018 to 2021, and 10 (11.11%) in 2016. Second, there were a total of 56 dissertations and 45 master's thesis (80.36%), and lifelong education major thesis was 35 (62.5%). A total of 34 articles were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and by journal, 13 articles (38.24%) were published in mainstream lifelong education and 21 articles (61.76%) were published in non-mainstream journals. Third, as for the analysis results by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was the most prevalent.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esented to find new solutions for the competency of lifelong education in a rapidly changing world.

\* Key words: competency, lifelong education, history of lifelong education, history of lifelong

education competency, research trends